

## “지역 소멸 대안” 전남도 ‘생활인구 확대’ 사활 건다

日평균 생활인구 397만명...주민등록인구보다 2배 많아  
지역 연계 관광사업·방문 편의성 증대 등 유입책 절실  
용역 보완·의견 수렴 거쳐 내년 상반기 종합계획 완성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도가 ‘생활인구’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근무·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방문한 체류 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인구 유입 종합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전남도의 의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올해 수행한 ‘전남도 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정책 연구 용역 결과, 전남 일평균 생활인구(시·군 집계, 2023년 4월 기준)는 397만8천109명이다. 같은 달 기준 전남 주민등록인구(181만3천439명)와 비교할 때 2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특히 전남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비정기적 생활인구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지역간 연계 관광사업체류 기간 확대 ▲정기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방문 편의성 증대 ▲지역 고유성 확대 살고 싶은 생활권 조성 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보완하는 한편, 실·국별 사업 고도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생활인구 종합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주인구의 경우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유입의 필수 조건이지만, 생활인구는 관광·유희·레저 등 지역 자원을 통해 비교적 쉽게 유치할 수 있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보통고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키로 해 지자체 입장에서 생활인구 확대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도가 생활인구 확대에 공을 들이는 것은 심각한 인구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남 인구는 178만9천610명으로 2020년 12월 이후 47개월 연속 반등 없이 줄어들고 있다. 전남 인구는 2000년 200만 명 선이 깨진 데 이어, 2017년엔 180만 명, 올해 3월엔 180만 명 선까지 붕괴됐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도 전남의 인구 감소세는 뚜렷하다. 2000년 전남 인구는 213만명으로 강원(156만명), 충북(149만명)과 50만명 이상의 격차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강원(151만8천700명), 충북(159만1천100명)과



신나게 즐기는 눈썰매 성탄절 휴일인 25일 오후 광주 북구 생용동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이 튜브 썰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예리기자

의 인구 격차는 2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 통계를 통해 2022년 전남 인구가 149만명까지 급감해 15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15-64세) 인구 비중은 2022년 64.5%에서 2023년 44%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4%에서 49.6%로 2배 이상 증가를 예측했다. 현재 전남도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시책으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타 시·도 유입 귀농어귀촌인 대상 ‘만원 세컨하우스’,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시·군·도 지역별 장점을 바탕으로 시행 중인 생활인구 유입 시책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곡성군의 ‘워 크빌리지 in 곡성’이 대표적이다. 곡성군은 섬진강·동악산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15개 동 규모의 생태체험 휴식형 위케이션 거점을 통해 2022년 46개 기업 187명, 2023년 49개 기업 345명, 올해 10월 기준 61개 기업 244명의 생활인구를 유입시켰다. 강진군도 관광객을 통한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여행금액의 절반을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누구나 반값 여행’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11월 기준 강진을 찾은 관광

객수는 267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213만명 대비 25% 증가했고 지역화폐 사용량(9월 기준) 10%, 카드 매출(상반기) 28% 상승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견인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 생활 공모사업 이행, 전남형 생활인구 유입 시책 발굴·고도화 등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시원기자

## ‘법적 책임 진다더니...’ 尹, 2차 출석 요구도 불응

오늘 3차 요구 여부 결정...공수처 “체포영장 단계는 아직 먼 얘기”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2·4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이르면 26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정장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이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서 보냈다는 윤 대통령 사건 이첩 자료를 아직 공수처가 받지 못하면서 관련 내용이 질문지에 반영되지 않았다.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서는 검찰이 송부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의 조서야 윤 대통령 조서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질문에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1차(출석) 통보했을 때 저희가 소관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은 당연한데 그런 기록들이 있으면 훨씬 조사는 더 평탄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전날 윤 대통령 측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3차 출석 요구 등 추가 조치 결정 시점에 대해 “갈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중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신병 확보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언급했다.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

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진수기자·연합뉴스

**Today**  
경기한파속 구세군 냄비 ‘필필’ 6면  
2024 아트뱅크...염순영 작가 14면  
2025 KBO 최고 몸값 외인은? 16면

**기부로 나눔 가치있게!**  
성금접수 계좌  
광주 사랑의 열매 : 053-107-999990 (광주은행)  
전남 사랑의 열매 : 301-4000-3000-01 (농협은행)  
광주·전남·전라남도·전라북도·전남·전남도공용회

###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 겨울철 난방비 절약! 사용량 38% 36,101원 절감!

20°C

<p>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20°C 유지</p> <p>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p>	<p>샤워시간 5분 줄이기</p> <p>한달 사용량 7.2%, 6,826원 절감</p>
<p>에어캡(복벽이), 문풍지, 커튼 활용 틈새 열손실 ↓</p> <p>한달 사용량 5.5%, 5,227원 절감</p>	<p>사용하지 않는 방 분배기 밸브 잠그기</p> <p>한달 사용량 4.4%, 4,160원 절감</p>
<p>보일러 노후배관 쌓인 오염물질 제거</p> <p>한달 사용량 5.0%, 4,760원 절감</p>	<p>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p> <p>한달 사용량 10.4%, 9,901원 절감</p>

**가스요금 줄이고, 캐시백 챙기자!**

**참여자 대상**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 및 절감기간**  
·'24년 12월 ~ '25년 3월

구글, 네이버 검색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https://k-gascashback.or.kr>

절감률	요금절감액	캐시백	절감총액	예상요금
5%(20m³)	18,860원	1,000원	19,860원	358,600원
10%(40m³)	37,720원	4,000원	41,720원	336,740원
20%(80m³)	75,440원	16,000원	91,440원	287,020원